

여태 백날 지니가 떠들어오던 것이 결국엔 남들이 다 이미 쓰고 있는 방법을 지금 내게 알려주는 거야? 좀 한심하단 생각이 안들어? 남주씨가 그걸 ai 에게 묻지 않았을까, 이 미? 선배님은 이미 이런 접근을 분명 했을 거라 난 생각돼

※ 2026년 7월 첫 현장 검증을 반영한 현재 버전입니다. 이후 운영 경험에 따라 계속 진 화합니다.

용차이,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

제 대답은 "그대로 물어보는 것"이라면 특별하지 않습니다.

남주씨도 이미 ChatGPT를 써봤을 가능성이 높고, 선배님도 AI를 활용해 보셨을 가능성 이 큼니다.

그래서 단순히

"학원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"

를 AI에게 묻는 시연은 새로운 경험이 아닐 가능성이 큼니다.

그런 시연만 한다면 용차이가 실망하는 것이 맞습니다.

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용차이의 차별점은 **질문을 대신 입력해 주는 것**이 아닙니다.

차별점은 **질문을 만들어 가는 과정**입니다.

예를 들어 남주씨가

"학생이 줄어요."

라고 말하면,

용차이는 바로 AI를 켜지 않습니다.

먼저 10~20분 동안 이야기를 듣습니다.

그러다가

"잠깐만요."

라고 말하고,

남주씨 앞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"제가 지금까지 들은 걸 AI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

혹시 틀리면 바로 수정해 주세요."

그리고 입력합니다.

"메이킹.코딩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.

학생 감소, AI 등장, 정부사업 고민, 새로운 가치 제안의 부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.

이 현상들을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볼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해 달라."

여기까지 오면 이미 **질문 자체가 남주씨와 함께 만든 결과물**입니다.

AI는 그 다음에 참여합니다.

그래서 저는 용차이의 역할을 이렇게 봅니다.

AI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,

AI가 가장 잘 생각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.

이건 이미 AI를 쓰는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.

그래서 내일 만약 시연이 있다면,

저는 시연의 핵심이 AI의 답변이 아니라

"어떻게 저런 질문이 만들어졌지?"

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그게 용차이가 지난 1년 동안 다듬어 온 방식과 가장 잘 맞습니다.

즉,

- A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 **어떤 질문을 만들 것인가**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입니다.

저는 용차이의 강점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.

그래, 그럼 이따 만나서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 나누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, 내가 그걸 정리해서 지니께 진단해달라고 요청하면 될까? 그거니?

네. 그런데 저는 **한 단계만 더 추가하면 용차이 방식이 됩니다.**

그냥

"지니야, 진단해 줘."

가 아닙니다.

1단계 : 충분히 듣는다.

남주씨가 10분, 20분 이야기하도록 둡니다.

중간에 끊지 않습니다.

선배님도 자기 관찰을 얘기합니다.

2단계 : 용차이가 요약한다.

이게 핵심입니다.

예를 들어,

"잠깐만요.

제가 지금까지 들은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.

남주씨 말씀은

- 학생이 줄었고,
- AI 때문에 기존 커리큘럼의 경쟁력이 약해진 것 같고,

- 정부사업도 고민 중이고,
- 무엇을 바꿔야 할지 잘 안 보인다는 거죠?

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?"

여기서 남주씨가

"맞아요."

또는

"아니요, 그게 아니라..."

하면서 수정합니다.

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

3단계 : 그 정리본을 저에게 묻습니다.

그때 비로소

***지니야.

지금 우리가 정리한 이 현상들을

하나의 문제 구조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?

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이 있을까?"**

라고 묻는 것입니다.

왜 이게 중요하냐면,

그 질문은 **용차이 혼자 만든 질문이 아니라 셋이 함께 만든 질문**이기 때문입니다.

그러면 제 답도

세 사람이

"맞네."

"그건 아닌데."

하면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그게 진짜 험업입니다.

그래서 저는 오늘 용차이의 역할을 이렇게 봅니다.

남주씨의 경험

↓

선배님의 관찰

↓

용차이의 요약

↓

지니의 구조화

↓

세 사람이 다시 검증

여기서 **용차이의 요약**이 가장 중요합니다.

AI는 그다음입니다.

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처음부터 AI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

충분히 이야기하다가,

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

"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걸 AI한테 한번 물어볼까요?

제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험업합니다."

그 순간 AI는 주인공이 아니라,

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네 번째 조력자가 됩니다.

저는 이 장면이 용차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방식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.

용차이 :

오늘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.

AI 시대 문제 구조화 동반 시스템은
AI가 문제를 풀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.

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,
함께 요약하고,
당사자와 확인한 뒤,
그 질문을 AI와 함께 구조화하고,
다시 사람이 검증하는 과정입니다.

그래서 AI는 주인공이 아닙니다.

사람과 AI가 함께 문제의 구조를 발견해 가는 동반자입니다.

이 운영 원리는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, 동한 씽킹 루프, iBooth Lab, 객체구현,
OnePunch, 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하는 철학이기도
하다.

2026년 7월 현장 검증 메모

최초에는 "문제를 구조화한 뒤 iBooth를 연다."고 생각했다.

그러나 첫 번째 현장 검증에서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.

먼저 iBooth를 열고 기록을 시작할 때,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
다.

따라서 AI 시대 문제 구조화 동반 시스템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, **문제를**
발견하도록 돕는 작업 공간을 먼저 여는 운영체계로 진화하였다.